

20년 간 묶였던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 인상 시동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금자보호 제도 검토 통해
한도·보험료율 등 개선 의지

금융사 예금보험료 인상 우려
'업권별 단계적 인상' 지적도



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1인당 보호한도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이다. 예금보호한도는 정치권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01년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지정했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예금한도 수준들을 평가했을 때 예금보호한도의 취지인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20년간 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예금자보호한도를 개선한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인상할 경우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은 신년사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금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현재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상당부분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는데 쓰이고 있다"며 "예금자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성장한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호한도 1인당 GDP 대비 1.34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보가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 등을 지

실제로 예보에 따르면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된 금액은 은행의 경우 2000년 12월 506조275억원에서 2019년 말 기준 1353조4810억원으로 2.67배 증가했다. 보험사는 같은 기간 130조700억원에서 804조1050억원으로 6.18배 늘었고, 금융투자사는 7조3740억원에서 31조686억원으로 4.3배 증가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하면서 예금보호한도의 실효성도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4만2373달러로 1인당 GDP(3만1638달러)의 1.34배이다. 주요 7개국(G7)의 1인당 GDP가 4만3608달러로 예금보호한도(12만4023달러)가 2.84배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위기가 터지면 뱅크런(집단예금인출)은 쓰나미처럼 닥

〈금융업권별 5000만원 이하 금액 비중〉

(단위:%)

	2004.12		2009.12		2014.12		2019.09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소비자	금액
은행	98.77	38.93	98.62	30.1	98.17	26.18	98.12	24.96
저축은행	97.67	80.69	96.49	79.22	99.22	90	97.82	74.71
생명보험	98.56	74.24	99.09	75.84	97.53	68.05	95.78	60.29
손해보험	99.91	90.58	99.87	87.56	99.74	83.22	99.55	83.14
금융투자	99.57	47.09	99.67	59.82	99.8	47.36	99.71	44.41

/예금보험공사

칠 수 있다"며 "미국도 2008년 금융 위기 때 예금자보호 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올렸는데 미리 금융안정망을 두껍게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권별 예금보호한도 차등화 필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금보호한도를 늘릴 경우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보험료율은 예금잔액의 0.4%다. 은행(0.08%)보다 5배 높다.

예금보호한도를 인상하기 위해 예금보험료를 더 부과하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예금보호 한도가 확대되면 목표 기금 아래서 그 규모도 상향조정돼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를 늘려 경영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에 반영돼 고객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예금이 대부분 예금보호한도 기준인 5000만원까지만 예금되고 있다. 만약 예금보호한도가 확대되면 소비자들이 높은 금리를 추구해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예금을 집중하게 되고, 이 경우 저축은행은 고위험과 고수익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현 수준의 예금보호 한도 하에서도 그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고 있다"

며 "예금보호 한도 확대의 혜택은 은행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예금자에게 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등 금융회사별로 예금보험료 인상 정도를 추정해보고, 보호한도를 5000만원~1억원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의 경우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초과한 금액비중은 75% 정도다. 반면 저축은행은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한 금액비중이 25%수준이다. 저축은행의 보호한도를 유지하면서 은행의 보호한도를 상향할 경우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부담도 덜고, 고금리를 찾아 이동하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도 줄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임원 세대교체에 MZ 설계사까지... 젊어지는 보험업계

삼성생명 40대 신입부사장 발탁
롯데손보 신입대표 후보도 40대
젊은고객 타깃 설계사 연령 낮춰



박준규 삼성생명 신입 부사장 후보, 이은호 롯데손보 신입대표 후보

보험업계가 젊어지고 있다. 임원진부터 보험 설계사까지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세대교체가 활발하다.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40대 임원 대거 등장... '세대교체 본격화'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2022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부사장 4명, 상무 7명 등 총 11명이 승진했다.

눈길을 모은 건 40대 부사장 발탁이다. 박준규 글로벌사업팀장 부사장은 1975년생이다. 박준규 신입 부사장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을 보낸 뒤 같은해 삼성경제연구소에 입사했다.

이후 ▲삼성생명 전략투자사업부장 상무 ▲삼성생명 글로벌사업팀장 상무 등을 역임했다. 삼성생명의 이번 인사는 파격이란 평가가 나온다. 세대교체를 통해 분위기를 바꾸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롯데손보도 지난 1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1975년생 이은호 전무(CFO·기획총괄)를 신입대표 이사로 내세웠다. 이은호 신입 대표 후보자는 2월 중 개최되는 임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대표이사에 정식으로

취임한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롯데손해보험 상무로 선임되어 전략을 담당해 왔다. 특히 신계약 가치가 우수한 장기보장성보험 중심으로 보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높여왔다. 사업 효율화와 지급여력(RBC) 비율을 개선하는 등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한 경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 신입 대표이사 후보자는 대주주 변경 이후 강화된 회사의 체질을 바탕으로 ▲내재가치 중심의 경영 강화 ▲디지털 전환의 완성 ▲영업 채널의 완비 ▲젊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구축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의 성공적인 이행 등 롯데손해보험의 가치 제고 전략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젊은 고객 확보 위해 설계사 연령 ↓

보험업계는 임원 뿐만이 아닌 보험설계사의 연령도 젊어지는 추세다.

한화생명의 경우 보험설계사 모집부터 상품 판매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한



삼성화재 서초SF지점 보험 설계사 이미지.

/삼성화재

'라이프 엠디(LIFE MD)'를 활발하게 모집하고 있다. 라이프 엠디는 한화생명의 엠을 통해 약 2주간 비대면 교육만 거치면 바로 보험 설계사로 활동할 수 있다.

실적부담과 시간 제약 등이 없어 공부와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등을 중시하는 MZ세대를 타깃으로 보험설계사 연령대를 낮췄다는 분석이다.

손보업계의 경우 삼성화재가 30~49세 여성 보험설계사 중심의 'SF(Success of Forty)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MZ세대 설계사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고객층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삼성화재는 고객의 요구와 소비 선택의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젊은 조직

으로서 고객 니즈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SF지점은 지난 2019년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전국 23개 지점에 약 500여명의 보험설계사를 보유할 만큼 확대됐다. 삼성화재는 향후 지속해서 SF지점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보험업계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데는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가 젊어지면 고객층도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 젊은 설계사가 자신의 관점에서 젊은 고객층에 맞는 컨설팅을 하게 된다"며 "기존 설계사들이 나이가 너무 많기도 하고 MZ세대는 보험에 대한 불신이 많았는데 젊고, 똑똑한 설계사들이 유입되며 극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dus0248@

쌍용차 주행성능·편의성 강화 뉴 렉스턴 스포츠&칸

쌍용자동차가 주행 성능과 편의성을 강화한 대한민국 정통 픽업트럭 '뉴 렉스턴 스포츠&칸'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렉스턴 스포츠&칸은 지난해 1~11월 기준 국내 픽업트럭 시장점유율이 약 82%에 이르는 쌍용차의 대표 모델이다. 쌍용차가 새롭게 선보인 신형 스포츠&칸은 첨단 커넥티드카 시스템, 최첨단 주행안전 보조시스템(ADAS) 등 상품성이 크게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뉴 렉스턴 스포츠&칸엔 새로 업그레이드 된 2.2LET 디젤엔진과 아이신(AISIN AW) 6단 자동변속기 등 최적의 조합으로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m으로 각기 8%, 5% 향상됐다. 아울러 ISG 시스템을 신규 적용해 연비 효율성도 높였다.

첨단 운전자 보조 및 커넥티드카 시스템도 보강됐다. ADAS는 기존 9개에 더해 중앙차선유지보조(CLKA), 차선유지보조(LKA), 후측방충돌보조(BSA), 후측방 접근충돌방지보조(RCTA) 등이 추가됐다.

/양성운 기자 ysw@



쌍용차 뉴 렉스턴 스포츠 칸 정측면.